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및 직업특성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행동

노진아·이숙†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생활과학연구소

Working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 According to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nd Job Characteristics

Jin-A No · Sook Lee†

Dep.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working mother's affectionate and authoritarian behavior according to social demographic variables,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job characteristics.

Questionnaires were developed and administered to 152 working mothers with 5th and 6th elementary school graders in Gwangju C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working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 according to social demographic variables. Second, affectionate behavior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all sub-factors of self-esteem, and authoritarian behavior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only in moral behavior and self-value.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both child-rearing behavior according to life satisfaction of working mothers. Fourth, according to job-related variable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ffectionate behavior, but not in the authoritarian behavior. Fifth, moral behavior and self-value had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s on mother's affectionate behavior, and life satisfaction had negative influences on authoritarian behavior.

Key words : affectionate and authoritarian behavior,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working mother

† 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00 Yongbong-dong, Buk-gu, Kwangju 500-757, Korea
Tel : 062-530-1323, Fax : 062-530-1329
E-mail : sookleej@hanmail.net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임.

1. 서 론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으로서, 인간은 가정환경을 통해 일생동안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가정환경 중 부모의 가치, 태도 및 행동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는 양육태도나 행동이 아동발달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이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다. 영아기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데 많은 연구자(박영애와 정옥분, 1996; 최미경과 도현심, 1998; 홍계옥, 2001)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 발달과 관련되어 가장 많이 연구되어온 주제라 할 수 있다.

최근에 와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여성취업자 중 기혼여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75.1%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00). 그러나 기혼여성의 취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인식이나 가족의 인식이 부족하고, 핵가족화로 인해 자녀 양육에 대한 가족내의 지원은 감소되어 가는 상황이므로 자녀 양육을 대리해 줄 수 있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업모의 취업은 죄책감이나 불안감 등 많은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이러한 취업모의 심리적 부담은 직업수행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양육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중 부모의 교육수준, 사회계층이나 아버지의 직업지위등에 관해 연구된 것이 대부분이며, 그 연구결과들도 일관되어 있지 않다고 보겠다. 더우기 취업모의 생활만족도나 자아존중감 같은 심리적 특성과 같이 보다 질적인 측면에 관련지어 양육행동을 분석한 연구는 그다지 보고된 바가 없다. 그런데 취업모의 양육행동은 특정한 육아 행동이나 기술보다는 취업모의 성격구조나 인성의 영향을 받는다(Belsky & Kelly, 1994)고 밝혀지고 있어서 취업모 자신의 특성인 개인적, 심리적 기능성은 자녀양육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겠다. 취업모의 심리적 특성 중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주관적 개념으로서 사고, 가치관, 자신의 생활경험에 대한 생각과 결정 그리고 양육행동에

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생활만족도는 스스로가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주관적 감정으로 이와 같은 심리적 복지 상태가 취업모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순애, 2001). 양육행동 중 특히 아동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온 하위요인은 애정과 권위주의적 통제로서, 이러한 양육행동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의 연구들에서 충분히 검증되어 왔으나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이나 생활만족도 등이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보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취업모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 같은 심리적 특성이 자녀를 애정 또는 권위주의적인 통제로 양육하는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취업모의 양육행동에 관련된 연구들은 그 동안 주로 취업여부에만 초점을 맞추어 취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다루어왔다.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은 취업 그자체보다는 취업의 동기, 직업의 특성, 가족의 지원 등 여러 환경적 맥락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어머니의 취업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취업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보겠다. 사실상 어머니의 취업은 다차원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취업모 가족에게 같은 조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모의 여러 가지 상황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 취업모의 양육행동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영향은 취업여부와 더불어 근무시간, 직업적 지위, 직업에 대한 만족도 등의 직업변인들을 고려해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Moorehouse,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양육행동 중 애정과 권위주의적 통제를 선정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취업모의 심리적 특성 및 직업변인에 따라 취업모의 양육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인들이 취업모의 양육행동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취업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취업모의 양육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특성(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 및 직업변인에 따라 취업모의 양육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2.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특성(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 및 직업변인이 취업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고찰

먼저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취업모의 연령에 따른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경향이다(김재희, 1998; 김영미, 2001; 이해상, 2001).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행동을 살펴보면, 학력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높고 매사에 자신 있게 행동을 하며 자녀에게 좀더 애정적인 행동을 보이고(운현선, 1984), 수용적인 양육행동(한중혜, 1980)을 보인다고 하였다. 반면에 취업모의 경우에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다(김재희, 1998; 이해상, 2001). 반면에, 문혁준(2001)은 교육수준과 소득이 낮은 집단의 어머니가 높은 집단의 어머니보다 더 애정적이며 덜 권위주의적 통제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한중혜(198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민주·자율적 또는 권위·통제적인 양육행동은 SES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SES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행동은 보다 더 애정·수용적이라고 하였다. 이 숙(1988)은 빈곤 계층의 부모들이 온정적 유형보다는 거부적·권위주의적 유형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김수영·허선자(199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정적·수용적인 양육행동은 가정의 월 평균수입과는 상관관계가 없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김영미(2001)의 연구에서도 취업모의 온정적·거부적 양육행동은 가정의 월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지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원영(1984)의 연구결과 어머

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버지의 직업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거부적인 행동은 아버지의 직업의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박성연·안재연(1992), 노명희·이숙(1991)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렇듯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애정적인 양육행동이나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 집중되어 있으나 그 결과에 있어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자기자신에 대한 개인적 평가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평가되며 자신의 능력, 중요성, 성공, 가치 등에 대하여 스스로 어느정도 믿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Rosenberg, 1965), 학자에 따라서는 자아개념이나 자아정체감 등의 용어와 차별화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론적 입장과 개인적 선호에 따라 어느 한 용어를 선택한 후에는 그 표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대체로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박영애·정옥분, 1996). Belsky(1994)는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인 자아개념은 사고, 가치관, 자신의 생활경험에 대한 생각과 결정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주며, 개인의 성숙도와 분화 정도가 높을수록 양육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였다. 운현선(1984)은 어머니의 자아개념 중 신체적 자아, 능력적 자아, 도덕적 자아, 총자아 개념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애정·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김경연(199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관련 변인 중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에 따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생활만족도와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김순애(2001)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가정생활만족정도에 따라 양육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직업만족도와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Hoffman(1961)은 3-6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 가정을 대상으로 이들의 양육태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직업에 만족하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가책을 느끼고 많은 애정으로써 그 것을 보상하려 하며, 자녀 훈육 시 적절하게 가벼운

체벌을 사용하는 반면, 직업에 불만족하는 어머니들은 어머니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며 덜 애정적이고 덜 훈육적이라고 하였다. 이희경(1981)의 연구에서도 직업에 대해 만족하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 수행도 잘 해 나가고, 자녀의 적응에도 크게 기여함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전보윤(1990)의 연구에서는 직업에 만족한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애정적인 행동을 나타내었고, 직업에 불만족하는 어머니들은 거부적인 행동을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직업변인과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고찰해보면, 박성연·안재연(1992)은 취업모의 취업을 둘러싼 배경변인들은 직업을 가진 어머니들의 심리적인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취업모의 양육행동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박성연·임미리(2002)의 연구에서도 취업모의 직업관련 환경이 취업모의 정서와 직결되고 정서적 안정감은 나아가 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취업모의 심리적 건강이나 안녕감은 양육행동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Hoffman(1974)의 연구에서는 시간제 근무 취업모가 이중 역할에 성공적으로 적응한다고 하여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부모자녀관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김윤숙(1989)의 비취업모와 취업모의 비교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하루 중 아동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취업모는 자녀에게 더 애정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5·6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 200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은 광주시의 4개 구에서 소속된 학교 한 곳을 각각 선정하였고 각 학교에서 3학년씩을 임의로 표집하여 수집하였다. 1학급당 아동수는 40명내외였으며, 이 중에서 취업모의 자녀는 12-17명 정도로 분포되었다. 수집된 자료 중 무응답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총 152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성격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 인	구 분	빈도(%)
취업모 연령	만 35세 이하	11 (7.2)
	만 36 - 40세	92 (60.5)
	만 41 - 45세	43 (28.3)
	만 46세 이상	6 (4.0)
취업모 교육수준	중졸 이하	20 (13.2)
	고졸	72 (47.4)
	전문대졸 또는 대졸	46 (30.3)
	대학원 이상	14 (9.2)
아버지 교육수준	중졸 이하	8 (5.3)
	고졸	59 (38.8)
	전문대졸 또는 대졸	65 (42.8)
	대학원 이상	17 (11.2)
가정의 월소득	100만원 이하	13 (8.6)
	101~200만원	51 (33.6)
	201~300만원	50 (32.9)
	301만원 이상	38 (25.0)
아버지 직업지위	무직·단순노무직	12 (7.9)
	피고용 기능공	44 (28.9)
	자영상공업	35 (23.0)
	사무직	30 (19.7)
	관리직 또는 전문직	31 (20.4)

취업모의 직업관련 변인의 성격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취업모의 직업지위는 자영상공업(32.9%), 피고용 기능공(31.6%), 사무직(22.4%), 단순노무직(6.6%), 관리직 또는 전문직(6.6%)의 순으로 나타나서 식당이나 미용실과 같은 자영상공업에 종사하는 취업모가 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종사하는 취업모보다는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취업모의 근무시간은 9시간(30.9%), 8시간 미만

<표 2> 취업모의 직업관련 변인(N=152)

변 인	구 분	빈도 (%)
직업지위	단순노무직	10 (6.6)
	피고용 기능공	48 (31.6)
	자영상공업	50 (32.9)
	사무직	34 (22.4)
	관리직 또는 전문직	10 (6.6)
근무시간	8시간 미만	38 (25.0)
	8시간	35 (23.0)
	9시간	47 (30.9)
	10시간 이상	32 (21.1)

(25.0%), 8시간(23.0%), 10시간 이상(21.1%)의 순으로 나타나서 9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모가 반수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특성(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과 직업변인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1) 자아존중감 검사도구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Harter(1982)의 자아지각 척도(Self- 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를 번안하여 만든 설문지를 예비조사를 거쳐 아동이 답변하기 쉬운 문장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검사도구의 구성은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외모, 사회적 수용, 행동 품행의 다섯 가지의 자존감 하위영역에 대한 자아지각과 하나의 총체적 자아가치 평가를 위한 전반적 자아가치감 등 6개의 하위영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거의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부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분하였고, 부정적인 문항은 반대로 점수를 배정하였다.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63 ~ .78로 분포되었고, 전체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2)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란 한 개인이 결혼, 건강, 생활수준, 직업 및 하루 일과, 자녀관계, 여가 및 사회참여 등의 생활 전반에 대한 재평가에서 오는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태도라(유지영, 1996) 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크게 가정생활만족도와 직업만족도로 나누어 측정하고자 하였다.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연구목적에 따라 하위영역별로 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하는 방법과 전체적인 만족도를 단일 문항으로 묻는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만족도와 직업만족도를 각각 단일문항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즉, '가정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직업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족한다'의 3점 Likert 식 척도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취업모 직업변인

취업모의 직업변인으로는 취업모의 직업, 근무시간을 조사하였다. 취업모의 직업은 직업지위에 따라 단순노무직(1점), 피고용 기능공(2점), 자영업(3점), 사무직(4점), 관리직·전문직(5점)으로 분류하였다. 취업모의 근무시간은 10시간 이상(1점), 9시간(2점), 8시간(3점), 8시간 미만(4점)으로 점수화시켜 분류하였다.

4) 양육행동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이숙·박성연(1990)의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중에서 애정 양육행동과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이라는 두 개의 하위요인을 선정하였고, 하위요인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한다고 생각되는 내용으로 문항을 다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양육행동의 두 하위요인은 각 9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거의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부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분하였다.

애정적인 양육행동의 신뢰도는 .88로 나타났고, 권위주의적 통제의 신뢰도는 .77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예비조사는 질문지 문항의 적합성과 응답자들이 검사의 내용이해와 질문의 답변에 어려움이 있는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2년 8월 30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광주시 초등학교 5·6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 50명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되었다. 그 결과 질문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정확하지 못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02년 9월 4일부터 11일 사이에 광주시에 소재한 4개의 초등학교 5·6학년 12학급의 취업모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질문지의 실시는 학급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아동을 통해 어머니에게 전달하여 다음날 회수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과 주요변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변인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하였고, 추후검정으로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취업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의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관련 변인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행동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행동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취업모의 애정적인 양육행동과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 관해 살펴본 결과를 살펴보면, 취업모의 연령이나 교육수준,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직업지위, 가정의 월소득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행동에는 두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해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들(김재희,1998; 이혜상,2001)을 지지해주는 것이다.

2) 심리적 특성(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행동

(1) 자아존중감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행동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에 따른 양육행동에 관해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자아존중감의 각 하위영역에 대한 집단 분류는 응답분포가 평균을 중심으로 편중된 경향이 있으므로 평균과 1/2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하여 상·중·하로 분류하였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 중 인지적 능력에 따른 양육

행동은 애정적인 양육행동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취업모의 인지적 능력이 높은 집단이 인지적 능력이 낮은 집단보다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체적 능력에 따른 양육행동에서도 애정적인 양육행동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취업모의 신체적 능력이 높은 집단이 신체적 능력이 낮은 집단보다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윤현선(1984)의 연구에서 취업모의 자아개념 중 신체적 자아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애정·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낸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외모에 따른 양육행동에서도 애정적인 양육행동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취업모의 외모에 대한 만족이 높은 집단이 외모에 대한 만족이 낮은 집단보다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수용에 따른 양육행동에서도 애정적인 양육행동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취업모의 사회적 수용 능력이 높은 집단이 사회적 수용 능력이 낮은 집단보다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행동품행에 따른 양육행동에서는 애정적인 양육행동과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취업모의 행동품행 점수가 높은 집단이 행동품행 점수가 낮은 집단보다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났고, 취업모의 행동품행 점수가 낮은 집단이 행동품행 점수가 높은 집단보다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 자아가치에 따른 양육행동에서도 애정적인 양육행동과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취업모의 전반적 자아가치가 높은 집단이 전반적 자아가치가 낮은 집단보다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났고, 취업모의 전반적 자아가치가 낮은 집단이 전반적 자아가치가 높은 집단보다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손화희(1989)의 연구에서 취업모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애정적, 수용적 양육태도를 지닌다는

〈표 3〉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에 따른 양육행동(N=152)

변인	구분		매 정			권위주의적 통제		
			M	SD	D	M	SD	D
자 아 존 중 감	인지적 능력	상	35.79	5.18	C	21.69	5.43	
		중	32.80	4.79	B	23.16	4.47	
		하	29.13	5.60	A	24.26	4.34	
		F 값	14.63***			2.73		
	신체적 능력	상	34.85	5.23	B	23.23	5.19	
		중	32.63	5.50	A	22.41	4.90	
하		31.58	5.60	A	23.65	4.17		
F 값	3.77 [^]			.97				
외모	상	36.08	4.98	B	22.41	6.34		
	중	32.09	5.06	A	22.86	4.19		
	하	31.45	6.11	A	23.76	4.16		
	F 값	8.91***			.80			
사회적 수용	상	35.75	5.50	C	22.64	5.84		
	중	32.81	5.45	B	22.61	4.65		
	하	30.18	4.50	A	23.84	3.66		
	F 값	12.58***			1.02			
행동품행	상	36.76	4.64	B	20.82	4.85	A	
	중	32.53	5.35	A	23.25	4.79	B	
	하	30.45	5.23	A	24.20	4.23	B	
	F 값	13.87***			5.06**			
전반적 자아가치	상	37.11	5.26	C	20.76	5.23	A	
	중	32.47	4.19	B	23.12	4.54	B	
	하	28.98	4.81	A	25.17	3.51	C	
	F 값	32.69***			10.33***			

* p < .05** p < .01*** p < .001

※ 상 > M + 1/2SD, M - 1/2SD < 중 < M + 1/2SD, 하 < M - 1/2SD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에 따른 양육 행동은 자아존중감의 모든 하위영역에 따라 애정적인 양육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 중 행동품행과 전반적 자아가치에 따라서만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모든 영역에서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형성한 집단에서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은 행동품행과 전반적 자아가치를 부정적으로 형성한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에 의해 취업모의 양육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운현선, 1984; 한종혜·홍계옥, 2000)와 일치하며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에 따라 양육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이다.

(2) 생활만족도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행동

취업모의 생활만족도에 따른 양육행동에 관해 살펴본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취업모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따른 양육행동에는 애정적인 양육행동과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 모두

〈표 4〉 취업모의 생활만족도에 따른 양육행동(N=152)

변인	구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M	SD	D	M	SD	D
생활만족도	가정 생활만족도	만족	34.64	5.53	C	21.27	4.69	
		보통	31.38	5.09	B	24.30	4.43	
		불만족	31.47	5.55	A	24.63	4.39	
		F 값	6.77 ^{***}			9.15 ^{***}		
	직업만족도	만족	34.48	5.79	B	22.33	4.70	
		보통	32.27	4.91	B	23.09	4.53	
		불만족	29.75	5.59	A	24.70	5.62	
		F 값	6.70 ^{***}			1.94		

** p < .01 *** p < .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취업모가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이하인 집단보다 만족 집단이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높게 나타냈고,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만족 집단보다 보통 이하인 집단에서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을 높게 나타냈다. 한편 취업모의 직업만족도에 따른 양육행동에는 애정적인 양육행동에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직업만족도가 불만족인 집단보다 보통 이상인 집단이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높게 나타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에 대해 만족하는 취업모가 자녀에게 애정적인 행동을 나타낸다는 결과(김순애, 2001; 전보윤, 1990)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김재희(1998)의 연구에서도 직

업만족도가 높은 경우에 직업만족도가 낮은 경우보다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높게 나타냈지만 통제적인 양육행동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3) 직업변인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행동

직업변인에 따른 취업모의 애정적인 양육행동과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 관해 살펴본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취업모의 직업유형에 따른 양육행동에는 애정적인 양육행동과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취업모의 근무시간에 따른 양육행동에서는 애정적인

〈표 5〉 취업모의 직업변인에 따른 양육행동(N=152)

변인	구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M	SD	D	M	SD	D
취업모	취업모 직업지위	단순노무직	31.60	3.69		22.90	3.48	
		피고용기능공	31.48	5.56		24.31	3.65	
		자영상공업	34.16	5.99		21.92	5.06	
		사무직	32.85	4.77		23.32	5.89	
		관리직 또는 전문직	34.90	6.74		20.70	3.71	
	F 값	1.91			2.23			
직업	근무시간	8시간 미만	31.66	6.50	B	21.47	5.07	
		8시간	33.45	4.81	A	23.54	4.21	
		9시간	31.40	5.49	AB	23.94	4.93	
		10시간이상	34.66	5.37	A	22.72	4.56	
		F 값	2.87 [*]			2.12		

* p < .05

양육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취업모의 근무시간이 8시간이거나 10시간 이상인 집단에서 8시간 미만인 집단보다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유형에 따라 애정적인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결과들(김재희, 1998; 이혜상, 2001)과는 불일치하는 것으로서, 어머니가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갖는가하는 것보다는 근무시간과 같은 직업관련 변인이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며, 직업유형보다는 직업관련 변인들에 의해 취업모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Hoffman, 1961; 박성연·안재연, 1992; 박성연·임미리, 2002)를 지지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취업모의 직업변인에 따른 차이는 근무시간에 따라서만 애정적인 양육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서는 직업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취업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제 변인들의 영향력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특성(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직업관련 변인,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취업모의 양육행동 중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버지의 교육수준, 취업모의 직업지위,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인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외모, 사회적 수용, 행동 품행, 전반적 자아가치 모든 영역과 가정생활만족도, 직업만족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취업모의 양육행동 중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은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 중 인지적 능력과 행동 품행, 전반적 자아가치와 가정생활만족도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양육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을 중심으로 애정적인 양육행동과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을 종속 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기본가정을 충족시키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Durbin-Watson계

수를 산출한 결과(1.71-1.89), 잔차 간의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취업모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포함된 독립변인들은 아버지의 교육수준,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인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외모, 사회적 수용, 행동 품행, 전반적 자아가치 모든 영역과 취업모의 직업지위, 가정생활만족도, 직업만족도 이었다. 취업모의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포함된 독립변인들은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 중 인지적 능력과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가치와 가정생활만족도 이었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취업모의 심리적 특성(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및 직업변인이 애정적인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에는 자아존중감의 6가지 하위영역 중 행동 품행($\beta = .20^*$)과 전반적 자아가치($\beta = .42^{***}$)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애정적 양육행동의 총 38%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의 총 자아 개념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애정·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낸다는 결과(운현선, 1984)와 취업모의 관련 변인 중 자아존중감이 취업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김경연, 1993)와 일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이나 심리적 특성 중 생활만족도 및 취업모의 직업지위와 같은 취업모의 직업관련변인은 애정적인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취업모의 심리적 특성(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이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에는 가정생활만족도($\beta = -.21^*$)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은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의 총 12%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가 가정생활에 불만족할수록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낸다는 결과(김순애, 2001)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가정생활만족도를 제외한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은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

〈표 6〉 애정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회귀분석(N=152)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 ²	Adj-R ²	F값
애정적 양육행동	아버지 교육수준	.43	.06	.41	.38	9.70***
	인지적 능력	.05	.03			
	신체적 능력	-.10	-.06			
	외모	.01	.01			
	사회적 수용	.21	.12			
	행동 품행	.44	.20*			
	전반적 자아가치	.68	.42***			
	가정생활만족도	-.05	-.01			
	직업만족도	.23	.03			
취업모 직업지위	.02	.01				

* p < .05 *** p < .001

〈표 7〉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 대한 회귀분석(N=152)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 ²	Adj-R ²	F값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	인지적 능력	-.03	-.02	.14	.12	5.92***
	행동 품행	-.19	-.10			
	전반적 자아가치	-.21	-.16			
	가정생활만족도	-1.25	-.21*			

* p < .05 *** p < .001

행동에는 애정적인 양육행동과는 달리 자아존중감 역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가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 불만족과 같은 심리적 특성이 자녀를 권위주의적으로 통제하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행동에 대해 살펴본 결과, 취업모의 연령과 교육수준, 아버지의 교육수준, 가정의 월소득, 아버지의 직업지위에 따른 양육행동에는 두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취업모의 애정적인 양육행동과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그다지 중요한 변인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자아존중감에 따른 취업모의 애정적인 양육행동과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의 모든 하위영역(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외모, 사회적 수용, 행동 품행, 전반적 자아가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은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 중 행동품행과 전반적 자아가치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취업모의 인지적 능력이 높은 집단, 신체적 능력이 높은 집단, 외모에 대한 만족이 높은 집단, 사회적 수용 능력이 높은 집단, 행동품행 점수가 높은 집단, 전반적인 자아가치가 높은 집단에서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행동품행 점수가 낮은 집단과 전반적인 자아가치가 낮은 집단에서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가 자신의 능력이나 외모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자녀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이고 애정적으로 나타내는 반면에, 자신의 행동품행에 낮은 평가를 하거나 전반적인 자아가치를 낮게

지각하는 경우에 자녀에 대해 더욱 거부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셋째, 취업모의 생활만족도에 따른 양육행동에 대해 살펴본 결과, 먼저 가정생활만족도에 따른 양육행동에는 애정적인 양육행동과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취업모가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이하인 집단보다 만족 집단에서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취업모의 직업만족도에 따른 양육행동에는 애정적인 양육행동에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불만족 집단보다 직업만족도가 보통 이상인 집단이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높게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취업모는 정서적으로 여유가 있어 자녀에 대한 관심도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 취업모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행동에서도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넷째, 취업모의 직업변인에 따른 양육행동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근무시간에 따라 애정적인 양육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취업모의 근무시간이 8시간인 집단과 10시간 이상인 집단에서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유형이 자녀를 양육하는 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이 결과는 직업유형 자체보다는 근무시간과 같은 직업적 특성이 더욱 의미가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보겠다. 또한, 근무시간이 9시간인 집단에서보다 1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집단에서 8시간 근무집단만큼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근무시간이 어느 한도이상 길어질 경우 긴 근무시간 때문에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한다는 죄책감에서 더 잘 해주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도 해석해볼 수 있으며, 근무시간이 길다는 것이 취업모의 스트레스를 가중시켜서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 가정이 전적으로 지지되지는 않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라 보겠다.

반면에,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는 취업모의 직업관련변인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특성(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및 직업변인이 애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에는 자아존중감의 6가지 하위영역 중 행동 품행과 전반적 자아가치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애정적 양육행동의 총 38%를 설명하고 있었다. 취업모의 행동 품행은 올바르게 행동하는지, 남을 잘 도와주는 편인지, 어른들에게 예절바르게 행동하는지에 관한 내용으로서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외모, 사회적 수용에 관한 자아존중감보다는 취업모가 자녀를 애정적으로 양육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더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에 따라 취업모의 행동 품행에 따른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취업모의 전반적 자아가치는 자신이 느끼는 행복감이나 만족감에 관한 내용으로서 애정적인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모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자아가치가 자녀를 애정적으로 양육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사회인구학적 변인이나 생활만족도 및 취업모의 직업관련변인은 애정적인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특성(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및 직업변인이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에는 가정생활만족도만이 유일한 부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의 총 12%를 설명하고 있었다. 취업모는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비취업모에 비해 역할의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가정생활만족도가 낮을 때 가정과 직업으로 인한 이중스트레스가 작용하여 자녀에게 권위주의적으로 통제하는 양육행동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취업모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에는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이나 직업관련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취업모의 자아존중감 같은 심리적 특성이 보다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즉, 취업모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은 인지적 능력, 외모, 신체적 능력이나 사회적 수용과 같은 구체적인 특성에 대한 지각보다는 자신의 행동방식이 얼마나 적절하다고 느끼는 지에 관한 행동품행이나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가치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관한 전반적 자아가치 같은 포괄적인 평가가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취업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되어 왔던 어머니의 교육수준이나 부모의 직업지위, 직업만족도 등과 같은 물질적, 객관적인 조건을 떠나 취업모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함으로써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나타내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취업모의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이나 직업만족도, 직업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가정생활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으로 통제하고 거부적으로 대하는 것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취업모가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을 낮게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업과 가사일이라는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직장과 가정에서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이외에도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신체적 지지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가족간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기법등을 훈련시키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애정적 양육행동과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 대해 각기 다른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를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5·6학년의 자녀를 둔 취업모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직업관련 변인 중 직업지위와 근무시간에 관해서만 살펴보았으나, 근무시간 융통성, 근무조건, 직업선택동기, 가족의 지지도 등 본 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한 직업관련변인들을 포함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두 유형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취업모의 심리적 특성(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직업관련변인을 주로 살펴보았으나, 앞으로 취업모의 양육행동을 보다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두 유형의 양육행동에 관한 분석만 실시되었으나 앞으로 분석하지 못한 다른 유형의 양육행동들에 대한 연구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관련변인에 따른 양육행동을 살펴보았지만 최근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에 있어서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취업모 뿐만 아니라 아버지 관련변인을 포함한 부모 양육행동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투고일 : 2003년 4월 30일

참고문헌

- 김경연(1993). 취업모의 관련 변인 및 취업모의 양육 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한국심리학회지**, 6(1), 37-50.
- 김수영·허선자(1998). 아동의 양심 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취업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가정 환경 및 아동의 기질을 중심으로. **한국유아교육학회지**, 18(1), 243-259.
- 김순애(2001). 취업모의 특성에 따른 양육행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2001).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숙(1989).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재희(1998). 취업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명희·이숙(1991). 취업모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9(4), 181-195.
- 문혁준(2001).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05-220.
- 박성연·안재연(1992). 취업모의 취업에 따른 자녀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0(3), 307-324.
- 박성연·임미리(2002). 취업모의 직업관련 특성, 타아기관의 질 및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57-68.
- 박영애·정옥분(1996).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1), 321-338.
- 손화희(1989). 취업모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현선(1984). 모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지영(1996). 중년기 부인의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51-165.
- 이숙(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숙·박성연(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이원영(1984).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지**, 5(0), 101-141
- 이혜상(2001). 생활보호대상 취업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어린이집 부적응 행동에 관한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경(1981). 모의 취업이 자녀의 적응과 취업모의 자녀양육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보운(1990).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만족도가 아동양육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경·도현심(1998). 취업모의 양육행동 및 또래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19(2), 19-33.
- 통계청(2000). 경제활동인구연보.
- 한종혜(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종혜·홍계옥(2000). 취업모의 자기 지각과 양육행동. **미래유아교육학회지**, 7(1), 85-111.
- 홍계옥(2001). 취업모의 자기-지각, 양육행동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한국아동학회지**, 22(2), 181-193.
- Belsky, J. & Kelly, J.(1994).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 How a first child changes a marriage*. Delacorte Press.
- Belsky, J. & Vondra, J.(1989). *Lessons from child abuse :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Har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offman, L. W.(1961). Effect of maternal employment on the child. *Child Development*, 32, 187-197.
- Hoffman, L. W.(1974). Effect of Maternal Employment on the Child-A Review of the Research. *Development Psychology*, 10(2), 204-228.
- Moorehouse, M.(1991). Linking maternal employment patterns to mother-child activities and children's schoo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5(6), 1399-1413.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